



Original Article

Discriminant Factors of Attitude Pattern toward Sexual Violence of College Women

Sung, Mi-Hae¹ · Lim, Young Mi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여대생의 성폭력 태도 유형의 판별 요인

성미혜¹ · 임영미²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¹,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²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scriminant factors of attitude pattern toward sexual violence of college women. **Methods:** A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with non-probability samples was conducted. A total of 292 college women participated. The instruments were Attitude Pattern toward Sexual Violence, Self-Esteem Scale, Gender Role Scale, and Attitude toward Sexuality. Dependent variable is Attitude Pattern toward Sexual Violence, which is composed of two groups; cases either harmer blame or sufferer blam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f-esteem,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nd attitude toward sexuality.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program and descriptive analysis, χ^2 -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Results:** To assess the adequacy of classification, the overall hit ratio was 68.5%, and the significant predictor variable was attitude toward sexuality. **Conclusion:** Replication of the study needs to be considered to further enrich the specific knowledge base regarding attitude toward sexual violence among college women.

Key Words : Sexual behavior, Self-esteem, Gender role, Sexualit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건강은 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사회적 지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이 과거의 성과 재생산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인 요소와 관련된 강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Park, 1995; Women's Health Nursing Curriculum Research, 2007). 특히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로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 (Kwon et al., 2006). 성폭력은 발생 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Gong, 2004),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를 하는 확률은 6.1%에 불과하다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09). 한국 성폭력 상담보고서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07)에 의하면, 성폭력상담건수 중 성폭력피해자의 약 97%가 여성이며

주요어 : 성폭력태도, 자아존중감, 성역할고정관념, 성태도, 여대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im, Young Mi,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62 Ilsan-dong, Wonju 220-701, Korea. Tel: 82-33-741-0386, Fax: 82-33-743-9490, E-mail: youngmi@yonsei.ac.kr

투고일 : 2009년 6월 5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7월 26일 2차심사완료일 : 2009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0월 27일

64.4%가 성인피해자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는 20세 이상인 여성이 55.7%로 과반수 이상이 20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et al., 2006). 대학생 1,032명(남자 499명, 여자 533명)을 대상으로 동아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실시한 '대학(원)생의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여자 대학생의 64.8%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여학생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시도, 강제추행 등 물리적 행동에 의한 피해는 물론,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부위 주시, 원치 않는 데이트 강요, 반복적 전화나 E-mail 등 비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Korea Human Right Foundation, 2005).

성폭력은 1970년대 이후부터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가 여성학적으로 접근되면서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문제로,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Nam, 2000).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성폭력의 실태조사, 현황 파악 및 경험에 관한 연구(Baek & Lee, 2006; Compton & Chechile, 1999; Draucker, 1999; Lee, W. S., 2000; Sadler, Booth, Nielson, & Doebbeling, 2000)가 진행되었다. 특히 건강한 사회의 성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자로서의 정체감을 확고하게 형성해 주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의식 및 실태(Kim & Kwon, 2006; Park, Kim, & Kim, 2005; Yang & Jeong, 2002)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성폭력 태도유형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Nam(200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성폭력 태도가 성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 것으로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개개인마다 독특한 의미나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개개인마다 다르게 반응한다(Nam, 2004; Shin, 2004)는 것을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태도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Nam(2000), Kim(2002)과 Shin(2004)의 연구에서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특성 및 가족적 요인, 또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Nam(2000)은 성폭력 태도는 부모의 경제 상태나 교육 등의 가족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성폭력은 남성 중심적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기초해 발생하며, 일상생활의 불평등한 남녀 관계가 더 강화된 것으로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Nam, 2000; Yeo, 2003). 이러한 성폭력과 관련된 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나 고착화된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Houng, 2005; Nam, 2000).

Nam(2000)은 성역할 사회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남녀의 이중적 성운리를 많이 내면화 할수록 성폭력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Kim(2001)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간의 관계 분석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Kim(2002)은 인간이 성의 발달과정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성에 대한 자신의 느낌, 가치관 등의 자아존중감과 성에 대한 태도 및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관련된 변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국내연구에서 성폭력에 대한 태도 유형 개발(Nam, 2000)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태도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Kim, 2002)는 있으나, 성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태도 유형 분류에 의한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예방 또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여성학적 관점에서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나 그 의미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폭력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연령층에 있는 여대생이 성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러한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바람직한 성폭력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초기에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태도유형의 분류집단을 예측 변인에 의해 판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판별 예측 변인이 유의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성폭력 태도 유형에 미치는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 성폭력 태도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요인의 차이를 비교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성폭력 태도유형의 판별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폭력태도 유형별 집단을 판별하는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구대상자는 B시와 K시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캠퍼스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표집은 편의 표집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292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성폭력태도 유형

성폭력태도 유형 측정도구는 Nam (2000)이 개발한 4개의 진술문으로 제1유형 (사회규범 책임형), 제2유형 (피해자 비난형), 제3유형 (의식개혁 주장형), 제4유형 (적극적 대처형)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진술문을 한 가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제1유형 (사회규범 책임형)은 성폭력은 우리나라의 윤리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과 윤리의식이 올바르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제2유형 (피해자 비난형)은 성폭력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로,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기 관리를 못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제3유형 (의식개혁 주장형)은 성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악질적 범죄행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다. 제4유형 (적극적 대처형)은 성폭력은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이나 사회 환경의 문제로 특히 성이 상품화되고 여성의 노출이 문제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성 개념이 필요하며 여성은 실제적인 방어교육이 필요하고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4개의 성폭력태도 유형은 제1유형, 제3유형, 제4유형은 비위험군으로 가해자 및 사회 책임형으로 구분하고, 제2유형은 위험군으로 피해자 책임형으로 구분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도구는 Rosenberg (1965)에 의해 개발한 도구를 Jeon (1974)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을 합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3)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측정도구는 Kim, E. J. (1997)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녀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지수 .20 미만인 4개의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이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을 합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개방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4) 성태도

성태도 측정도구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Kim, E. J. (1997)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이었으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지수 .20 미만인 3개의 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으며, 총 11문항을 합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 만 강의실에 남겨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작성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윤리적 측면에서의 대상자 보호는 자발적 참여로 대신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는 29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 98.3%), 이중 부적절한 5부를 제외한 292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과 성폭력에 대한 태도유형 및 관련요인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성폭력 태도 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개인 특성 및 가족적 요인의 차이는 χ^2 -test,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예측 변인(자아존중감, 성태도,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 검증은 t-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성폭력 태도 유형의 판별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이용하였다. 판별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태도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 20~21세가 48.6% (142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26.7% (78명)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53.1% (155명)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90.8% (265명),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86.3% (252명)로 가장 많았다 (Table 1).

2. 성폭력 태도유형별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특성의 차이

성폭력 태도유형별 분포에서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 태도는 대상자의 95.2% (278명),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 태도는 대상자의 4.8% (14명)이었다 (Table 1). 성폭력태도 유형에 따른 종교, 부의 교육, 모의 교육, 가구 월수입의 차이 분석을 살펴본 결과, 가구 월수입에 따른 성폭력 태도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태도를 비교한 결과, 오로지 종교유무에 따른 성태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이는 종교가 없는 여대생집단이 종교가 있는 여대생집단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4. 성폭력 태도 유형의 판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판별분석의 목적은 성폭력 태도의 두 가지 유형, 즉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과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 태도유형의 두 그룹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판별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태도이었다. 판별함수의 타당성 검토는 Table 3과 같이 정준판별함수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attitudes toward sexual violence

(N=292)

Variables	The harmer blame type (n=278)		The sufferer blame type (n=14)		χ^2	p
	n (%)		n (%)			
Religion					0.097	.791
Yes	147	(52.9)	8	(57.1)		
No	131	(47.1)	6	(42.9)		
Education level of father					3.306	.086
≤ Middle school	93	(33.5)	8	(57.1)		
≥ High school	185	(66.5)	6	(42.9)		
Education level of mother					1.464	.264
≤ Middle school	45	(16.2)	4	(28.6)		
≥ High school	233	(83.8)	10	(71.4)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5.6265	.013
≤ 200	81	(29.1)	0	(0.0)		
≥ 201	197	(70.9)	14	(100.0)		

*Fisher's exact test.

Table 2. Self-esteem,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nd attitude toward sexua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92)

Variables	Self-esteem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ttitude toward sexuality		
	M±SD	t	p	M±SD	t	p	M±SD	t	p
Religion									
Yes	39.54±0.51	-0.34	.73	44.96±3.80	-0.45	.65	13.85±3.46	2.09	.03
No	39.35±0.47			44.76±3.89			14.64±2.93		
Education level of father									
≤ High school	39.56±5.11	0.49	.62	44.68±4.03	-1.14	.25	14.16±3.16	-0.44	.65
≥ High school	39.25±4.62			45.22±3.45			14.34±3.41		
Education level of mother									
≤ High school	39.39±5.00	-0.43	.66	44.75±3.89	-1.19	.23	14.24±3.22	0.20	.83
≥ High school	39.73±4.70			45.46±3.59			14.14±3.40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39.08±5.01	-0.79	.43	44.82±3.29	-0.12	.89	13.87±3.13	-1.15	.25
≥201	39.59±4.92			44.89±4.04			14.36±3.28		

의해 판별함수의 유의성을 검증할 때 정준상관(canonical correlation)은 판별식의 설명력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별점수의 분산을 총 분산으로 나누고 제곱근한 것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판별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정준상관계수가 0.19로 나와 판별력이 높지 않았다. 고유값(eigen value)은 집단 간의 분산을 집단내의 분산으로 나눈 값으로 보통 1 이상이 되면 좋은 판별함수가 된다. 또한 Wilks' Lambda는 집단내의 분산에 대한 총 분산의 비율로서 집단 간 분산이 집단내 분산에 비해 클수록 0에 가까워지며, 판별함수의 집단 간 판별력이 높음을 의미한다(Malhotra, 1993).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유값이 .037이고, Wilks' Lambda 값이 .965로서 판별함수의 설명력이 낮았지만 즉 판별력은 높지 않았지만, 판별함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Wilks' Lambda 값의 χ^2 -test 결과, $p < .05$ 로 나와 판별함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단 간에, 즉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태도 집단과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 태도 집단의 평균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Discriminant function for attitudes toward sexual violence

Function	Eigen 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square	df	p
1	.037	.188	.965	10.376	3	.016

판별력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판별함수의 전반적 적합도 점검을 통해 적중률(hit ratio)을 파악하였는데, Table 4는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정확히 분류된 비율, 즉 실제집단과 예측집단이 일치하는 수를 총 사례수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적중률에 대한 표로서 판별함수가 각 개인의 소속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 그룹의 69.1%,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 그룹의 57.1%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으며, 집단이 정확하게 분류된 비율은 68.5%로서 판별함수의 설명력이 낮았기 때문에 집단분류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Table 4. Classification results (N=292)

Actual group	No of cases n (%)	Predicted group	
		Harmer blame group, n (%)	Sufferer blame group, n (%)
Harmer blame group	278 (100.0)	192 (69.1)	86 (30.9)
Sufferer blame group	14 (100.0)	6 (42.9)	8 (57.1)

Hit ratio=68.5%.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과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의 두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0.501, p < .05$). 즉 성폭력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에 대한 태도로,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Discriminant factors for attitudes toward sexual violence

Function	Wilks' Lambda	F	p
Self-esteem	.997	0.926	.337
Attitude toward gender role	.994	1.689	.195
Attitude toward sexuality	.965	10.501	.001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폭력 태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성폭력 피해 예방 프로그램의 중재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네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유형은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이 대상자의 95.2%, 그리고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이 4.9%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없지만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Nam (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성폭력태도 유형의 분포가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 비해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 집단의 비율이 4.8%로 낮게 나타난 결과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성폭력에 대한 홍보 및 성교육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성폭력태도 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을 가진 집단과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을 가진 집단 간의 가구 월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태도 유형은 가구 월수입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Nam (2000)은 성폭력태도는 부모의 경제 상태와 같은 가족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의 월수입이 많은 경우 대상자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 반면 월수입이 적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돌리는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여학생의 경우 부적절한 성폭력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이들의 의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금의 혜택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서 성폭력태도 유형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Nam (2000)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직업에서 성폭력태도 유형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남, 녀 대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성별, 직업을 제외한 다른 특

성과 성폭력태도 유형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볼 때, 개인이나 가족적 특성보다는 오로지 성별의 차이, 즉 남성과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대상자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없는 여대생집단이 종교가 있는 여대생집단에 비해 성태도가 개방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Oh (2003)의 연구에서 무교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종교가 성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종교적 교리나 신념이 이들의 성태도에도 영향을 주면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띄게 한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과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어떤 독립변수가 가장 많이 설명하는 지에 대한 유의성 검증한 결과 성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2002)의 연구에서 성별과 반사회적 성격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Nam (2000)의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성에 대한 태도, 가족지지, 직업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오로지 성에 대한 태도 변수만이 공통적으로 예측 변인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성폭력이 유발되고 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Back, 2003; Choi, 2005; Nam, 2000)고 주장하는 여성학적 시각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에 대한 태도는 성 개념 및 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이중 성윤리, 성욕의 남녀차이, 성관계 주도 주체의 남녀 구분에 관한 것으로, 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남성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인 반면 여성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지음으로써, 남성이 성관계를 주도하도록 만들고 여성은 남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가부장적 성문화는 성별 사회화 과정 및 남녀 비대칭적 성문화를 통해 남성은 공격적 가해자로, 여성은 피해자로의 자질을 갖도록 한다 (Nam, 2000). 따라서 성에 대한 규범을 남녀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는 성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 또는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성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며, 특히 예방측면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통해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폭력태도 유형의 두 그룹 즉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 태도 유형집단과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 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는 비록 낮았지만, 판별함수의 유의성 검증에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판별함수가 각 개인의 소속집단을 얼마나 분류하는지,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전체 적중률은 68.5%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집단의 표본수가 너무 적고, 집단 내 분산이 매우 컸음으로 인해 판별식을 구성하는 각 독립변수와 전체 판별식의 설명력과 예측력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중률이 낮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폭력 태도 유형을 판별하는 요인은 성에 대한 태도 변인이외 다른 속성을 가진 변인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때, 성폭력 태도 유형의 인지적 특성 변인이외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 요인을 포함한 판별요인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성인초기 여성의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예측 변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태도 유형에 따른 판별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 초기 여성의 성폭력 태도 유형과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후 표본수가 많은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폭력 태도 유형의 판별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B시와 K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재학 중인 여대생 285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성폭력태도 유형도구(Nam, 2000), 자아존중감 도구(Jeon, 1974), 성역할 고정관념 측정도구(Kim, E. J., 1997), 성태도 도구(Kim, E. J., 1997)이었다. 독립변수는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성태도였으며, 종속변수는 성폭력태도 유형으로 가해자 및 사회 책임형 성폭력태도유형과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태도 유형의 두 집단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χ^2 -test, t-test, 판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판별 분석한 결과, 정준상관계수가 .19, 고유값은 .037, Wils' Λ 값은 .965로 판별함수의 설명력은 낮았으나 판별함수의 유의성 검증에서는 가해자 및 사회책임형 성폭력

태도 유형 집단과 피해자 책임형 성폭력 태도 유형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두 집단을 판별하는 적중률은 68.5%로 나왔으며, 두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이 올바른 성폭력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교육이나 성폭력 피해 예방 프로그램에서 성태도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 변인이외의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성폭력 태도유형에 대한 판별요인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성인 초기 여성뿐만 아니라, 성인초기 남성을 포함한 성인초기 연령을 대상으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로 된다.

References

- Back, K. O. (2003). *Research on problems of cyber sexual harass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Baek, E. R., & Lee, E. M. (2006).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and recommendations for sexual violence counselling for women with disabilities. *J Asian Women*, 45(1), 53-100.
- Choi, S. H. (2005).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sexual harassments and violence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Compton, K. M., & Chechile, D. (1999). *Sexual violence, rape, and war*.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
- Draucker, C. B. (1999). Knowing what to do: Coping with sexual violence by male intimate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9(5), 588-601.
- Gong, S. J. (2004).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Bases on the experience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J Korean Acad Nurs*, 34(6), 913-923.
- Houng, K. M. (2005).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identities and attitudes about sexual violenc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107-1124.
- Kim, B. T. (2001). Sense ability and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sex and structured sex role. *Res Soc Sci*, 27, 249-268.
- Kim, E. J. (1997). *Attitude to sexual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Kim, H. K. (2002).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attitudes toward sexual viole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8(1), 20-23.
- Kim, M. S., & Kwon, S. H. (2006). A Survey and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shmen at 2006. *J Stud Guidance*, 11(1), 125-196.
- Korea Human Right Foundation (2005). *Violence in 64% of col-*

- lege women*. Retrieved, June 16, 2005, from the Korea Human Right Foundation Web site: http://www.humanrights.or.kr/board/board_show.php?code=news1&num=4224.
-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07). *Counseling statistics*, Retrieved February 4, 2008, from th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Web site: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
-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09). *Counseling statistics*. Retrieved February, 13, 2009, from th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Web site: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about/2>
- Kwon, S. H., Kim, S. N., Park, C. H., Seo, Y. S., Sung, M. H., Ahn, S. H., Yoo, J. H., Yoo, Y. J., Lee, S. O., Jeon, E. M., Jung, Y. S., & Jo, E. J. (2006). *Women and health*. Seoul: Soomoonsa.
- Lee, W. S. (2000). Analysis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of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s. *J Soc Sci*, 9, 171-195.
- Malhotra, N. K. (1993). *Marketing research: An applied orient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Nam, M. J. (2004). *A study on rape myth according to sexual ident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Nam, S. Y. (2000). *A study on the type attitude toward the sexual violence in Korean*.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Oh, H. K. (2003). A study of the knowledge, attitude and needs for adolescent on sex of Korea female students in college.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ion*, 20(2), 163-178.
- Park, K. J., Kim, D. W., & Kim, S. H. (2005).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J Stud Guidance*, 26, 307-342.
- Park, Y. S. (1995). Approach from feminism in nursing. *Nursing Inquiry*, 4(1), 129-14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dler, A. G., Booth, B. H., Nielson, D., & Doebbeling, B. N. (2000). Health-related consequences of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Women in the military. *J Obstet Gynecol*, 96(3), 473-480.
- Shin, G. S. (2004). *The effect of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adolescent on the attitude change relevant to sexual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Women's Health Nursing Curriculum Research Association. (2007). *Women's health nursing care*. Seoul: Soomoonsa.
- Yang, S. O., & Jeong, G. H. (2002). Perceptual difference of sexual image and sexual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8(2), 289-300.
- Yeo, J. H. (2003). College women's meaning of women: Phenomenological methods. *J Korean Acad Nurs*, 33(1), 34-41.